

데이터 다 못썼는데 요금은 그대로 '불만'

단말기 보조금에 92.2%가 정액요금제 가입 기본제공량 절반도 사용 못한채 통신비 부담만

비스 이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스마트폰 가입자의 92.2%가 이용하는 정액 요금제에선 음성·문자·데이터를 조절하지 못해 절반 가량의 이용자가 오히려 추가 비용을 내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1월 발표한 '2012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사용자 중 45.3%가 기본요금이의 추가 이용 요금을 지출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통신비 잡을 방법은? =대다수의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선택·조정형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를 권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에만 합인 혜택을 주고, 수중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에 차등을 두는 통신사 요금 정책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20일 동구 총장로 일대 통신매장 방문한 결과 LTE 스마트폰은 아직 정액 요금제만이 서비스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남은 기본 제공량을 이용해 주거나, 혹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금에서 차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이용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

▲'선택요금제' = 기본 제공량을 이용자가 선택해 조합할 수 있는 요금제, '조정요금제'란 음성·문자·데이터 사용시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을 수 있는 요금제를 말한다.

도록 맞춤형, 저가형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MVNO(알뜰폰·통신망을 가진 기존사업자의 설비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사업자) 판매가 편의점,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됐다. 출고가를 낮춘 저가 스마트폰도 속속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이런 새로운 '판'의 형성이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직장인 정승운(28)씨는 매달 휴대전화 사용료를 볼 때마다 속이 탄다. 전화는 자주 사용해 매달 초과 비용이 나오고, 쓰지도 않는 문자와 데이터는 번번이 남지만 다음달이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씨는 "사용한 만큼 통신비를 내는 건 이해하지만 요금제에 묶여 쓰지도 않는 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나"며 불만을 토로했다.

◇기본제공량 받은 버린다 =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대다수가 기본 제공량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이용자의 절반 가량이 '요금제-이용자의 사용량' 불일치로 초과 비용을 지급한 경험이 있어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카톡 등 메신저 사용 늘고 음성·문자 이용 줄어 소비자 패턴에 맞는 맞춤형 요금제 확대해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9일 발표한 3G·LTE 휴대전화 이용자 1511명을 설문한 결과 3G '54 요금제' 가입자의 기본 제공량 대비 월평균 음성통화 사용량은 74.3%, 문자서비스는 36.1%에 그쳤다. LTE '62 요금제' 가입자도 음성 통화는 68%, 문자서비스는 28.6%, 데이터통신은 56.7%만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바일인터넷 활용 증가로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와 카카오톡과 같은 MIM(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가 널리 사용되면서 음성과 문자 서

통신사가 기본 제공량을 '정액 요금제'로 묶어 판매하는 까닭에 통신비는 큰 폭으로 상승해 왔다.

지난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3·4 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계 통신비 지출은 월 평균 15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가계 통신비는 2009년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함께 7분기 연속 증가를 보이고 있다.

통신사업자연합회는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는 미이월을 전제로 음성·문자·데이터를 개별 이용할 때보다



지난해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된 알뜰폰이 대형마트에서도 판매된다. 3만 원~8만 원의 저렴한 가격대와 다양한 요금제의 활용이 가능하다. 진열대에 놓인 알뜰폰을 바라보는 고객의 모습 <GS리테일 제공>

통신사 관계없이 어디서나

'공공 WiFi' 핸드폰·노트북 무료 인터넷 접속

통신사별로 구분해 사용했던 와이파이(WiFi) 망이 통합돼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도입됐다.

이제 통신사 관계없이 어디서든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KT, SKT, LGU+)에 따르면 지난해 말 1000여 곳의 공공장소가 공공 와이파이 장소로 추가돼 전국 2000여 곳이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구역으로 지정됐다.

공공 와이파이의 주안센터, 시·군·구청 민원실, 우체국, 버스 터미널, 도서관 등 공공지역에 이동통신 3사가 협의해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다.



광주 지역은 광주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광주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한 130개 지역, 전남은 각 시립도서관과 보건소 등 145개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장소 검색과 서비스 가입은 방통위가 운영하는 공공 와이파이 홈페이지(http://www.wififree.kr)에서 가능하다. 와이파이망 사용은 해당지역에서 "public wifi"란 SSID를 선택한 후 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스마트폰 100배 즐기기

새학기에 관한 모든 것

일주일 뒤엔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한다. 새 마음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유용한 앱을 소개한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는 '급식'시리즈가 인기다. 고등학교는 '김급식', 중학교는 '장급식', 초등학교는 '최급식' 등이다. 아침·점심·저녁으로 학교 급식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간표, D-DAY 기능을 갖춰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과 신고가 가능한 '아이엠스쿨'과 '학교폭력 법집' 등의 스마트폰 앱은 자녀의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준다. 실제 지난해 부산에서는 '아이엠스쿨'을 통해 학교폭력 개화에 경합에 불잡히기도 했다.

유형이 바뀌면서 수능에 대한 고민이 늘었지만, 기술 문제는 언제나 옳다. 최근 6년간의 수능·모의고사 문제가 실린 DEVELOPER MIGUEL KEY의 '수능문제' 시리즈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클릭 한번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 국과위 '원스톱시스템 ZEUS' 구축

전국 어느 곳에서 손쉽게 과학 연구 장비를 예약,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에 따라 고가의 연구장비 구매가 부담스러운 중소기업 연구자와 학생 과학자들의 연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공동활용 서비스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연구기관 및 과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원스톱서비스시스템

ZEUS'(http://zeus.nfec.go.kr)를 구축하고 20일 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ZEUS는 대학 및 출연(연) 등 전국에 분포한 연구장비 보유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만들어 나가는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연구장비 예약시스템으로, 인터넷 영하 예약처럼 간단한 클릭만으로 전국 125개 기관이 보유한 1557개 연구장비의 조회·검색 및 이용예약이 가능하다. 문의 1670-0925. /박정렬기자 halo@

'젤리빈' 운영체제 탑재·무선충전 지원·풀HD 동영상 촬영

'갤럭시S4' 다음달 14일 뉴욕서 공개

지난 2010년 판매를 시작해 1억 여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 시리즈의 최신작 '갤럭시S4'가 다음달 중순에 시장에 공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전문 사이트 '삼모바일'(www.sammobile.com) 등은 18일(현지시간) 러시아 최대의 휴대전화 사용자 사이트인 '모바일 리뷰'의 창립자 알다르 무르타친의 트위터를 인용, "삼성전자가 내달 14일 뉴욕에서 갤럭시S4 발표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르타친은 트위터에서 "14일 '중대 발표(big announcement)'가 있다"고 밝혔다. 삼모바일은 앞서 '갤럭시S4'의 출시일을 15일로 예상한 바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모바일용 옥타코어 칩을, 삼성전자는 '갤럭시S4'의 출시일을 15일로 예상한 바 있다.

'갤럭시S4'에는 이런 삼성전자의 최신 기술력과 함께 2GB의 램, 안드

로이드 4.2.2 '젤리빈' 운영체제(OS)가 탑재되고 무선충전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풀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1300만화소급 카메라 장착도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신제품 출시 일정에 대해 아직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세계공인중개사 동구 황금동 102-1 메가박스거리 총장로.황금동 임대.매매전문 ☎ 010-3666-7891	용봉보양탕 북구 용봉동 용봉시장맞은편 세미골고양 보신탕, 오리탕, 추어탕 보신수육 단체손님환영 대표 : 이은영 ☎ 062-527-5788	은산사주찾집 동구 공동 35-1 예술의거리 일년운세 대표 : 박명순 ☎ 062-226-6133	남도골프 남구 방림동 광주천변우로길옆 골프클럽, 용품, 피팅 골프의 모든 것 대표 : 배광섭 ☎ 062-673-8118	내가본추어탕 북구 두암동 말바우시장 온리원 앞 추어탕, 추어숙회, 우황오리, 흑돼지삼겹살 단체 예약손님 환영 대표 : 김미정 ☎ 062-261-5554		
해플염주점 서구 회동동 염주4거리 광주은행 옆 남녀 화장품, 홍사미, 각종건강기능식품 천연세제 취급판매점 홍보 및 판매 여사원 수시모집 ☎ 062-385-3521	부곡온천 월산동 903-3 송림맨션 부근 온천탕 전문 대표 : 변갑중 ☎ 062-363-5999	조앤드위치(총장지점) 금남로 1가 19 YMCA내 1층 샌드위치, 커피 전문점 대표 : 김명희 ☎ 062-223-0202	DDM미즈존(광주본점) 동구 공동 7-11 김경희와과내 예술의거리구 QD마크 기능성체형 보정의류업체 소자본창업 경험자 우대 ☎ 010-8335-7790	청기와주유소 봉성동 서광주 현전 맞은편 남선석유주유점 주유소.자동차 난 방유 정품배달 ☎ 062-361-5556	사계절 남구 송하동 43-10 광주대사거리센트럴호텔옆 굴매생이탕, 동태탕 한정식 단체품안비 대표 : 이경범 ☎ 062-672-0338	쓰촨(손짜장) 신창동 1222-4 부영1차 전문양 스티어 쟁쟁전문 대표 : 김학원 ☎ 010-3624-0626
출외 공동 41번지 구 동구청 뒷골목 동태탕, 매생이탕, 삼계탕, 전복탕 대표 : 조정순 ☎ 062-222-1215	무등한정식 총장로 5가 총장주차장빌딩앞 한정식 전문-점심(소머리국밥) 대표 : 윤희영 ☎ 062-225-1503	강남뷰티아이라인 동구 창장로 밀레오레 옆 숙녀샵연장, 연예인 자연스러운썬 점박이아이라인,남자는썬전문 ☎ 062-232-0885	아디다구클럽 남동 총장로 메가박스 건너 고수달길3층 삼구, 시구 포켓전문 대표 : 최문호 ☎ 010-6354-8910	(주)인맥스디자인 남동 171-5 번지 디자인 전문 ☎ 062-232-7705	한국산한약건강재당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안 제일빌딩정후문앞 인삼, 녹용, 각종한약재, 보약, 침약, 생약초 전문 대표 : 박종규 ☎ 062-266-4070	설하사 금남로 2가 23-3 YMCA옆 사주, 점역, 역학연구, 주역, 철학으로 친철상담 이기이름, 상호, 예명, 호, 개명, 궁합 사주풀이, 미션오일, 대우오일 전문 대표 : 황인규 ☎ 062-266-7610
영지철학원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로터리 화동우체국 옆 골목 사주, 관상, 직명, 승진운, 이사운, 택일, 역학 궁합, 묘 이장, 주역, 철학으로 상담 해드립니다. ☎ 062-227-8235	영마트 북구 두암동 기신로로터리옆 광주은행 뒤편 정육매장, 수산물, 신선식품, 생활용품, 천과, 이체 각종생활용품 구매전환시 신속배달 대표 : 황승현 ☎ 062-265-6161	들깨랑팔이랑 화정4동 921-1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옆 들깨갈기수, 판죽전문 대표 : 박종수 ☎ 062-374-5552	소랑돼지랑 산수동 523-31 먹자골목 국내산 임돼지, 한우, 차돌박이 애호박찌개, 육개장, 기타, 계절메뉴 대표 : 김창남 ☎ 062-261-2264	황고집목사발 북구 오치동 1035-9 문산골 맞은편 목사발, 목사발, 목전, 목무침, 목오리전골로스 목을 100% 매일 직접 만들어 판매 합니다. ☎ 062-265-7171	명가짬뽕촌 문흥동 989-12 문산초교 건너 각종 중화요리전문 대표 : 차덕란 ☎ 062-266-8060	고흥카서비스센터 북구 두암동 송림3거리와 행재전사거리주유소맞은편 자동차정비, 검사, 뽕, 오일, 보타데리, 인센터 고압펌프, 미션오일, 대우오일 전문 대표 : 황인규 ☎ 062-266-7610